목이 짧아서 슬픈 여자여!

(고전11:1~16)

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2.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키므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3.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4.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5.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6.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목이 짧아서 슬픈 여자여!>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목이 짧아서 슬픈 여자여.
이 제목을 들으면 여러분, 당장에 연상되는 구절이 있지요?
노천명 시인의 '사슴'이라는 시가 기억이 날 것입니다.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왜 사슴의 목이 긴 것을 슬프게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를 끝까지 읽고 보면 슬퍼져요.
그 다음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물속의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 내고는 어찌할 수 없는 향수에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 데 산을 바라본다'
아니 사슴이 긴 모가지하고 먼 데 산을 바라보는 게 슬퍼서 그랬겠습니까마는, 근데 하여간 이 노천명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 괜히 슬퍼집니다.
그리고 진짜 사슴의 목이 긴 것이 슬프게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사람 사는 세상 속으로 들어와 보면, 목이 좀 적당히 긴 여자를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목 미인이 돌아가신 육영수 여사였어요.
육영수 여사의 우아한 자태를 많은 사람들이 칭찬한 데에는 그 목이 긴 것이 큰 덕을 봤죠.
그러니까 한복을 입어도 목이 길면 좀 우아해 보이는 모양이에요.
모딜리아니의 '목이 긴 여자'라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목 미인이 누구입니까?
근데 사실 이러한 어떤 정해진 편견을 없애고 보면, 목이 길면 우아하다는 걸 아니라고 말할 필요 없죠? 그러나 목이 짧으면 짧은 대로 또 귀여운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목이 길고 목이 짧은 것은,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는 아닌 걸로 여겨집니다.
전혀 영어로 말해 'big deal'이 아니지요.

근데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이 목이 짧은 게 정말 슬픕니다.
모가지가 길어서 사슴이 슬픈 게 아니라, 목이 짧아서 여자가 슬퍼요, 목이 짧은 여자가 정말 슬픈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목이 짧은 여자는 귀여워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목이 짧아가지고 먼 데서 보면 머리하고 몸하고 붙어있는 거 같으면 귀엽지 않아요? 너무 목이 또 멋대가리 없이 길기만 해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허전하고.
하여간 이런 얘기는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생각하시면 될 일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여자가 목이 짧은 여자입니다.
목이 긴 여자가 진짜 복이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면 영적인 의미에서 목이 긴 여자는 어떤 여자냐?
또 목이 짧은 여자는 어떤 여자이기에 목이 길어서 슬픈 게 아니라 목이 짧아서 슬프다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은 말입니다, 고린도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공예배 때에 여자 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문제시한 고린도교인들 중에서 사도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니 여자가 머리 쓰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도의 자유를 누릴 수도 없느냐, 남자들이여 편견을 가지고 여자들에게 자꾸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조항들로 얽어 매려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교회 안에서 조차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되겠느냐'라고 말할 것으로 기대를 했을지 모르는데, 사도바울 입에서 요즘에 우리의 상식적인 정서로 보자면, 너무나 받아들이

기가 곤란한 남녀관계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그 당시 지금의 중동에서와 마찬가지로, 히잡 같은, 여자들이 머리와 얼굴을 천으로 가리지 않습니까? 그걸 히잡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중동뿐만 아니라 헬라문화권에서조차도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중동지방과 헬라권이 공히.
이 머리에 여자들이 수건을 쓰는 것의 의미가 뭐였냐 하면, 남자에 대한 정절과 순결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시이고 남자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수건을 쓰는 게 그런 의미라면, 수건을 벗고 다니는 여자가 있다면 그건 어떤 의미였겠어요?
'나는 어떤 남자에 대하여 정절과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 남자에 대한 정절과 순결과 복종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여자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매춘부들 같은 경우,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자가 머리가 긴 것이 여자로서의 아름다움과 명예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드리 헵번 형의 머리스타일, 그렇게 짧은 숏컷 머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머리가 길지 않은 여자일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창녀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풍습을 알고 오늘 본문을 대하고 보면, 교회 안에 들어온 여자들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머리에 수건을 날마다 쓰고 다니고 얼굴을 가리고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여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적 자유를 거기에 실천적으로 적용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고린도 시의 관습상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냐 하면,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될 경우 '아니, 여기에 웬 거리의 매춘부들이 가득 모여 있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사도바울의 생각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그런 식으로 자꾸 적용이 된다 그러면, 안 그래도 문란한 이 방만한 고린도 시의 분위기와 연결이 돼서 교회의 영적순결을 지켜나가기가 어렵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이 1절에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본받음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까지 모든 고린도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사도바울의 시각입니다.
그 시각이 뭐였는지 쉽게 말하면, 광야의 복지를 이룬 뒤에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의미에서의 복지는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노예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그러면 노예 신분에서 굳이 벗어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노예는 육체의 현실이지만, 네 마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마음이 하늘을 소유하게 될 때에는, 마음의 성공을 이루고 광야의 복지를 이루게 될 때는, 광야의 복지가 뭐라고요?
육체와 연관된 상황과는 무관하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주어질 수 있는 것들과는 무관하게,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하늘을 갖게 될 때 얻게 되는 복지가 광야의 복지이고, 이때 얻게 되는 성공이 마음의 성공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성공을 받고 나면,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노예라고 하는 현실조차도, 하나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지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지고 있는 역할일 뿐이지, 너의 인격이 노예도 아닌 것이고, 자유하지 못할 것도 하나도 없다.
노예가 아니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유함이 없는 것이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 육체적인 신분이 노예일지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고, 천국을 얻게 되고 세상 가치들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하게 되면,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노예 신분을 유지하면서 살아도 부족함이 없다.

한 마디로, '마음의 성공과 광야의 복지를 이루면, 육체적인 상황과 현실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데, 자꾸 너희들이 육체적인 현실을 바꾸려고, 마음을 거기다 주게 될 경우는, 그러한 삶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마음이 다시금 육체에 예속되어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 버리는 환원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는 이혼하지 말 것이고, 이혼한 여자는 결혼하려하지 말 것이고.
그냥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의 그대로를 갖고 살 생각해라.
상황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줄 수 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 상황을 바꾸려고 마음을 거기다 쏟지 말고 하나님께만 드릴 생각을 해라.
이런 입장에서 볼 때에, 히잡을 벗고 안 벗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고린도시의 풍습을 염두에 둘 때 교회가 매춘부들의 모임이라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서적으로 볼 때, 히잡에 부여되어 있던 의미, 나는 어떤 한 남자를 위해 정절을 지켜야 되고 어떤 한 남자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의미가, 성서적으로 볼 때, 그렇게 어긋난 게 아니다.
그 풍습이 남녀관계에서 갖고 있는 성서의 의견 속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성해방 운동가들이 보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내용들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읽지 않은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 기분 나빠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천사들이 위에서 여자와 남자를 내려다보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천사들이 볼 때 어떻게 보느냐 하면, 남자와 결혼한 여자라면, 아니면 남자와 연관되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여자라면, 마땅히 머리에 수건을 씀으로써 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라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볼 때 여자임을 알게 하라는 얘기에요.
비유적인 얘기지요?

이 수건은 이처럼 복종의 의미를 뜻합니다, 누구에게 예속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쓰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자! 이 얘기가 다 무슨 얘기인지, 그 당시 헬라와 그 당시 중동 권에서 통용되던 문화적 관행을, 시간적 제한이 있는 것들이니까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이라면 그렇게 말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알맹이가 되는 사도바울의 남녀관계에 대한 생각을 뽑아봅니다.
그러면 어디로 집중이 되냐 하면,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 인간사회에서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예속되었음을 뜻합니다.
노예나 종이나 한 남자에게 예속된 여자나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게 될 경우에는, 이 인간사회 안에서 무언가에 예속되었음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예속 되어야 될 사람이 다른 누구에게 예속된 것으로 보이니까 안 되고, 여자가 머리에 히잡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나는 아무 남자에게도 예속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니까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3절의 말씀이 무엇이냐?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이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입니다.
그렇지요? 그랬잖아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 또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는, 머리에서 모든 생각이 결정되면 몸의 사지는 머리에서 결정된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복종과 예속의 관계를 말하는 거지요.
자! 여기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이 요즘 사람들로서는 반발을 하게 될 텐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남자가 결정하고 여자가 따르게 되는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요즘 현실에 가정문제 같은 경우, 오히려 여자가 머리가 돼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서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결정하고 남자가 따르는 게 성서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것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그 분에게 조금도 막힘이 없고 손상됨이 없이 그대로 흘러 들어와서 표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자에게 들어온 현상을,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거치고 남자를 거쳐서 여자에게로 누구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자는 그리스도를 목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면 여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머리에요.
왜냐하면 머리이신 하나님의 생각이, 그리스도를 관통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막힘이 없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남자에게서 막힘이 없이 자기에게 전달이 되니까, 여자의 머리도 결국 마지막 궁극적으론 하나님이고, 남자의 머리도 하나님이고,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의 머리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그리스도를 목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존재이고, 여자는 그리스도와 남자를 목으로 해서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도 하나님이고, 남자의 머리도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도 하나님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하고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남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그리스도만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됩니다.
근데 여자는, 머리이신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하고 남자를 통하고 여자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아버지에 붙어 있는 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도 갖고 남자도 갖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일 많이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다,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게 전달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가 될 수 있는 남자는 어떤 남자냐 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남자만이 여자의 머리가 될 수 있는 남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서 제일 복된 여자는 돈을 많이 버는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아닙니다.
장 동건 같이 잘 생긴 남자와 결혼한 고 소영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일 많~이 벌어들이는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제일 행복한 여자이고, 축복받은 여자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창조주이시고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많이 벌어들이는 남자가 제일 훌륭한 남편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산도 옮겨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돈을 못 벌어서 못 버는 게 아니라, 돈 그까짓 거 안 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면, 못 버는 게 아니라 안 버는 거예요,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돈을 많이많이 가져야 되지만,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여자이니까.
그래서 돈을 안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라서 돈이 없으면 돈 못 버는 남자가 최고의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짧은 여자는 하나님을 머리로 삼지 않아요.
내가 머리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이 없는 거예요, 목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남편이 중간에 끼여 있지 않아요.
여기서 오해할 수 있지요?
모~든 사람의 구원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 스스로가 주님께 붙을 때, 주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남자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 때에 어떻게 질서가 잡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이고,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인 상태에서, 여자가 남자를 머리로 삼고 살 때가 가장 완벽한 질서요, 가장 완벽한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목이 긴~ 거예요.
그리스도와 남자라는 남자는 목의 하단부이고, 그리스도는 목의 상단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는 겁니다.
삶이 우아해 질 수 있습니다, 목이 길어서, 목이 길어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남자라고 하는 목의 상단부와 하단부가 없게 돼 버리면, 이건 그야말로 멸망으로 가는 여자이고, 목이 짧아서 슬픈 여자가 되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데 남자가 믿지 않을 경우, 남편이 믿지 않을 경우에 슬픈 여자이지요.
멸망까지는 아니라도 슬픈 여자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현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남자가 없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어떡하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통과 되어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남자가 실제로 많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이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하는 이 사도바울의 말씀의 뜻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를 봐요.
하나님과 아랑곳없이 살아가요, 그리스도와 아랑곳없이 살아가요, 천방지축이에요.
신앙적으로 보면, 자기가 다 할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겁 없이.
사업이고 뭐고 다 자기가 결정하고 살아가요.
내버려둬요.
그러나 그 남자가 나와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어요.
섭리적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직 은사적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지요.
은사적 결혼이라는 게 바로 남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남자로써, 내 머리가 될 수 있어서, 내 목의 하단부를 이루어 줄 수 있는 남자.

아! 그런 여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축복된 것이지만, 그렇지 못 할지라도, 은사적 결혼이 이루어지 않은 상태라도, 섭리적 결혼 안에서 언젠가 이 남자가 내 목의 하단부가 되어 주고,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음으로써 내 목의 상단부가 되어 줌으로써, 그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이 가정에서 함께 무엇인가 결정해야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목이 긴~ 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와 남편이라는 목의 상단부, 하단부를 통해서 내게 흘러들어올 수 있는 여자가 될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남편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도가 결정되고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남자가 언젠가는 내 목의 하단부를 이루어야 될 텐데, 자녀문제에 대해서, 가정문제에 대해서, 사업문제에 대해서, 모든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내 목의 하단부가 되어줄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도 천방지축이었잖아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나를 보면 내 남편이 아무리 못나 보여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사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여 아무쪼록 죽기 전까지, 사슴처럼 목이 길어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이 긴 여자가 되어서 목이 짧아 슬픈 현실로부터 벗어나, 가장 복된 여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